익산시 "수돗물 안전해요"

정수처리시설 특별 현장점검… 유충검사 실시 '이상무'

벌레 유입 원천차단 위해 방충망 설치 등 정수시설 보강

최근 수도권 일부지역의 '수돗물 유충사태'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특별 현장점검 및 유충방지 대책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21일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도청, 한국수자원공사와 합동 점검을 통해 여과지 내 유충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점검지는 익산시 관내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정수시설 2곳으로 정수시설 합동 점검을 통해 여과지 내 유충이 있는지 육안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여과사 및 여과수 시료를 채취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시는 수질실험계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고 지난 20일부터 4일간 정수장 내 방충설비와 위생·방역 관리상태 등 현장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의 여과지와 정수지, 배수지의 창틀과 환기구 방충망 설치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벌레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수장 시설을 보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수지 및 배수지 환기구 105개소의 방충망을 교체하고 신흥정수장과 금강정수장 여과지동 총 19곳에 창문 방충망을 설치했으며, 신흥·금강정수장 정수지의 맨홀 2곳에 이중보호 장치를 시공했다. 또, 여과지 전체 12곳에 대해 방충망 덮개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정수지와 배수지 4개소 주변 예초작업과 여과지 3개동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에는 배수지 및 침전지 청소와 정·배수지 예초작업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29일부터 벌레·유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에서 유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익산시 상수도과 (☎ 859-4379, 4343)로 신고하고 수돗물에서 발견한 소형생물 및 필터를 촬영하여 보관하면 된다.

정헌율 시장은 "먹는 물은 시민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정헌율 시장은 30일 유희숙 부시장과 13개 협업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상황 점검과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익산시 집중호우 피해 예방활동 강화

익산시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정헌율 시장은 30일 유희숙 부시장과 13개 협업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우경보 발령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상황 점검과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정 시장은 부서별 읍면동 종합행정담당을 파견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아파트와 마을방송을 활용해 호우 발생 시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이어 재해취약지역과 농작물 피해 상황 등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대형공사장 책임자에게 공사장 내 가림막?타워크레인 등의 전도 방지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시는 30일 오전 6시 50분을 기점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직원 191명이 비상 2단계 근무에 돌입했다. 앞서 시는 28일 호우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24시간 상황 유지에 돌입하여 호우대비 비상 1단계 근무를 실시해 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 소룡동 '릴레이 우리동네 합동순찰' 호응

코로나 방역 · 장마철 안전점검

지역주민과 장마철 안전점검과 코로나19를 함께하는 릴레이 우리동네 합동순찰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주민센터는 코로나19 방역 및 장마철 안전점검을 위해 지역 주민들과 릴레이 합동 순찰을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합동순찰'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 통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동장,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도보 순찰하며 공공시설물의 고장·파손 여부, 재해위험 및 상습 침수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복지 사각지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소룡동 주민센터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확인된 민원사항은 담당 부서에 즉각 조치를 요청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해결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권은경 소룡동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동네 순찰을 통해서 지역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는 소룡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룡동 주민센터는 이번 순찰과 함께 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사항 및 여름철 장마와 폭염대비 협조 사항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소룡동 '우리동네 합동순찰'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지역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 통을 돌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익산시의회 예결특위, 3차 추경안 심사

대부분 코로나19 관련 예산

익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29일~30일 이틀간 익산시가 요구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한동연 의원,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 김용균 의원, 김충영 의원, 임형택 의원, 최종오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제출안을 바탕으로 심사 중인 3차 추경규모는 1,696억 원으로, 증액예산 대부분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와 방역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동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꼼꼼히 심의하겠다."고 말하며, "코로나19 대응사업은 적극 지원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할 계획이다."며 심사의지를 밝혔다.

어양동, 팔봉동을 지역구로 둔 한동연 위원장은 재선의원으로 제7대 익산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평소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성실하고 섬세한 의정활동으로 호평받고 있다.

한편,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7월 31일 익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장점마을 후속 지원대책 마련"

익산시,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환경현안' 건의

정헌율 익산시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찾아 지역 환경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30일 이뤄진 정 총리 면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동행해 장점마을 살리기 사업과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이적사업, 왕궁현업축사 전량 매입 및 생태복원사업의 시급성과 정부 차원의 지원 당위성을 피력했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 마을에서 500m 가량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주민들이 암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주민 33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사망했고, 16명이 투병 중이다.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인근 비료공장이 주민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재발방지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적극적인 후속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시장은 이같은 일련의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장점마을 지원 대책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수흥 의원도 지난 7일 암이 집단 발병한 장점마을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연초박을 비료공장에 공급한 KT&G에 대한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등의 국회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과 이로 인한 침출수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광역매립장 조성을 제안하고 축산악취와 새만금 수질오염의 주범이었던 왕궁현업축사도 전량 매입하여 생태복원하는 방안을 적극 건의했다.

정헌율 시장과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는 정부가 환경오염 피해와 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장점마을 환경재난과 폐석산 불법폐기물, 왕궁현업축사와 같은 환경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책임은 물론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마을 하수도 정비

군산시가 마을 하수도 정비로 농어촌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새만금지역 수질 개선을위해 옥구읍, 옥산면 일원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정한 2020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152억원(국비 106억원)을 투입해 다기지구(옥구), 봉동지구(옥산)에 각각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로 7.3km, 7.1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 환경부 협의 및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오수와 우수를 개별 관로를 통해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도를 도입, 생활하수 및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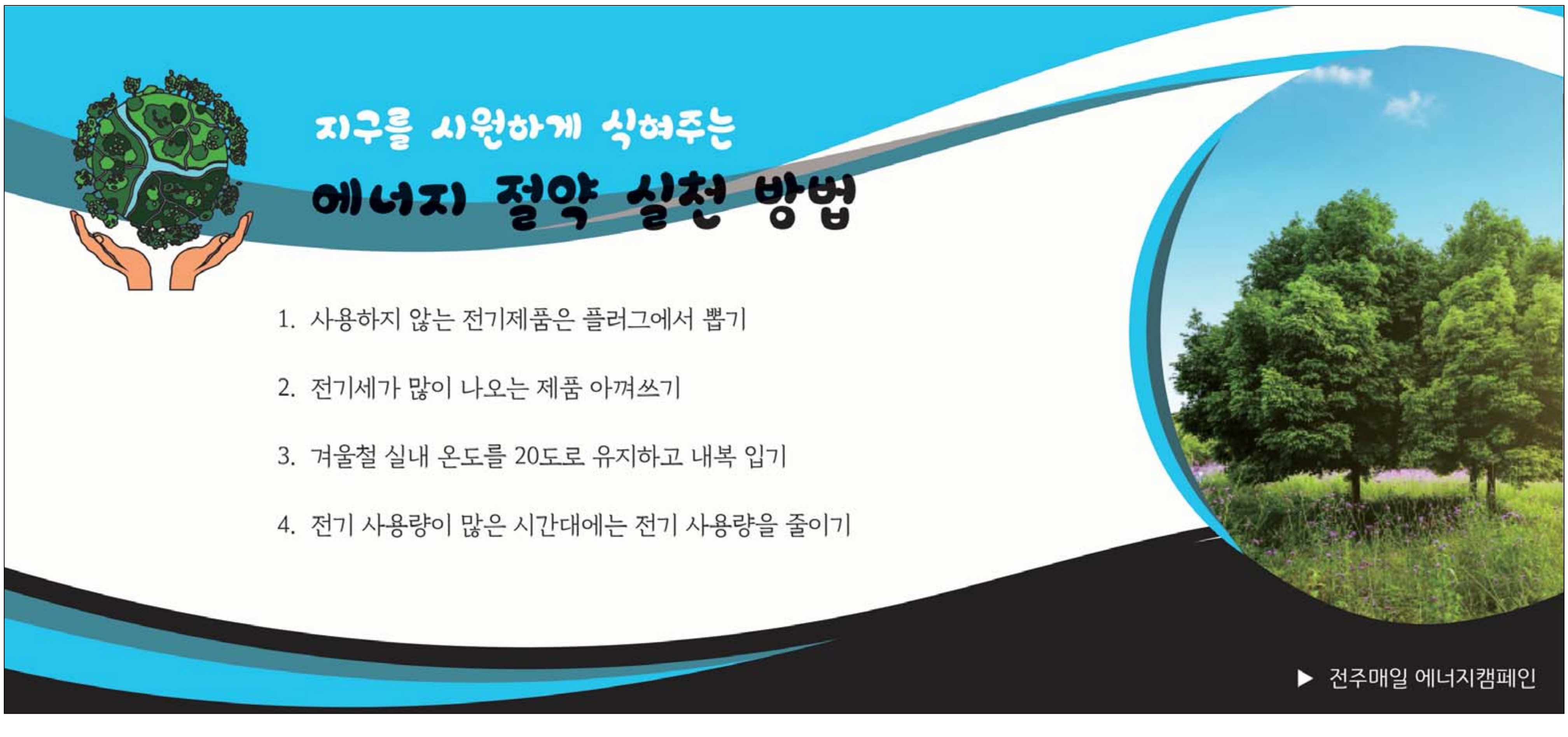
/군산=한경봉기자

군산 산들도서관 시범운영

군산시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한 산들도서관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9월말 개관 전까지 실시하는 시범운영 운영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휴관하며, 도서대출(1인당 5권, 14일) 및 회원증 발급 등 가능하다.

군산시 도서관 관계자는 "10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 개선, 지역내 도서관 홍보 등 산들도서관이 지역의 독서문화 중심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